

서울교육청,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 맞춤 복지포인트·특별휴가 늘린다

지방공무원 복지·근무여건 개선 자기개발비 상향, 육아시간 보장 업무부담 완화·민원대응 보호 강화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복지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단체협약이 4년 만에 체결된다. 불필요한 보고문서 축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최소화, 악성민원 대응 강화, 복지포인트·특별휴가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2026년 공무원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하고, 오는 16일 단체협약체결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체결되는 공무원 단체협약이다.

가장 큰 변화는 복지와 처우 개선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맞춤형복지포인트 기본점수 향상과 건강진단비 부여, 자기개발비 상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모범공무원 수당 상향, 민원업무수당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수당 지급 기준 인상 등은 추진 과제 또는 관계기관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휴가 제도는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휴가 확대를 추진하고, 육아시간 사용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을 검토한다. 재량휴업일에



서울시교육청 용산청사.

연가와 학습휴가 등 휴가 사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협약에 반영했다.

업무 부담 완화 방안도 구체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불필요한 보고문서를 폐지하고 보고 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줄이고, 문서 택배 발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공무직 급여업무 교육과 변경사항 사전 안내 등 현장 행정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담았다.

학교 현장의 근무환경은 공간과 장비 개선에 무게를 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실과 서고, 시설관리실 등 학교내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인쇄실 공기청정기 설치와 노후 등사 장비 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원 대응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악성민원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공적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손해 배상 책임 비용을 보상하는 책임보험 운영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이행 상황과 근무환경 개선 과제를 논의할 정책협의회는 분기별 1회 열린다. 협의회에서는 단체협약 이행 점검과 복지 증진, 고충 해소, 제도 개선 등을 다룬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시, 이주비 대출 LTV 70% 완화 건의

정부에 재개발 규제완화 요청 이주비 대출 LTV40%→70%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부족과 낮은 사업성, 복잡한 절차가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10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안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LTV 40%가 적용되는데, 이를 7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

다. 서울시는 10·16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완화 방안도 포함됐고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재건축 때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안도 담겼다.

서울시가 건의한 10개 과제 가운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나머지 9개 과제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개정 사항이다.

시는 지난해 11~12월 서울시정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실무협약체 논의,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의 사항이 반영되는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AI 활용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전국 최초 스마트시티 기술 활용 새로운 교통안전교육 모델 구축

고양시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스마트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나선다.

시는 지난 11일 스마트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관리부서인 교통정책과와 운영기관인 고양도서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스마트 어린이 교통공원의 시설 구성과 콘텐츠, 공간 배치, 운영 방향 등 실시계획 결과가 공유됐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과가 추진해 온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성과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접목한 것으로, 기존 시청각 중심 교육을 AI 기반 미

려형 체험교육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실제 교통환경과 유사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안전교육 모델 구축에 나섰다.

스마트 어린이 교통공원은 AI 기반 실감형 교육 콘텐츠를 새롭게 도입해 현장감 있는 체험교육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AI 보행자 면허관 ▲AI 보행 안전관 ▲차량 탑승 안전관 ▲두바퀴 체험존 등으로 구성된다.

고양시는 앞으로 실시계획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AI 기반 교통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힘을 기울인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고교학점제 안내 다국어로... 6개 언어 배포

서울시교육청, 6개 언어 자막 제공 이주배경학생 증가... 정보접근성↑

서울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안내 영상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6개 언어 자막으로 제작해 보급한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과목 선택과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진 만큼, 이주배경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영상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자막을 제공한

다. 영상에는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고등학교 생활 안내, 과목 선택,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점 이수 기준 등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과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인정 기준 변경’ 등 최신 내용도 영상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은 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이주배경학생은 13.6% 증가했다.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은 같은 기간 22.3% 늘었다. 현재 서울 학생 100명

중 약 3명은 이주배경학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언어 차이로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접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와 서울고교학점제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영상 제작에는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온센터가 번역을 지원했다. 다+온센터는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원스톱 진입 서비스,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상담, 통번역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현진 기자

경과원, 지역산업인력양성 2년 연속 최우수

지난해 815명 배출... 목표 163% 달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운영하는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S) 등급을 획득했다.

경과원이 운영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기술 교육과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평가는 전국 65개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훈련실적 달성률과 수요율, 참여율, 만족도 등 정량지표와 과정 운영, 자체 점검, 사업관리 체계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

해 이뤄졌다.

경과원은 90점 이상 기관에만 부여되는 최우수 S등급을 2년 연속 획득하며 교육 운영 역량과 사업 수행 능력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은 최근 3년간 총 2363명의 수요생을 배출하며 도내 중소기업 인력양성 기반 구축에 기여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815명의 수요생을 배출해 연간 목표 대비 163%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6월 16일 (화)

음력 : 5월 2일

수도권 날씨

21 ~ 3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10 | 해질 / 19:55

연천 17/32, 동두천 19/32, 가평 17/32, 파주 18/31, 서울 21/33, 양평 19/32, 인천 20/30, 수원 20/32, 용인 20/32, 평택 19/33, 백령도 17/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젠슨 황, 일본 패싱” 닷케이 보도에...“한심하다, 또 잃어버린 30년” 비판

▲트럼프, 김정은과 산책 사진 공유하자...남북경협주 ‘들썩’

/사진 뉴스스

▲세계문화유산, 러 공격에 화재 발생...우크라 “야만적” 격분

▲이스라엘, 美-이란 합의에 충격·분노...“우리 관점에서 재앙”

▲휴전도 무색했던 美·이란 보복전...중전 뒤 ‘60일 핵협상’ 남았다

▲일본, LNG선 제조 부활 나서...“한국 조선업계에 기술전수 요청”